

대부분의 나라는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 하면 축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커다란 축제로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력 정월, 다른 하나는 추석입니다. 그 중에서 음력 정월은 가장 커다란 축제입니다. 한국은 타국과 달리 양력 1월1일이 아닌 음력 1월1일로 축제를 합니다. 그 날을 「설날」이라고 부릅니다.

음력 정월에는 그동안 떨어져서 생활하던 가족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 날입니다.

음력 정월에는 한국 고유의 옷인 한복을 입습니다. 요즘은 한복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평상복을 깨끗이 해서 입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력 정월에는 먹는 음식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떡국은 정월에 꼭 먹는 음식입니다. 떡가래를 조금 굳어지면 가족이 모여서 일정한 모양으로 잘라 둥니다. 그리고 손님이 방문하면 그것을 끓여서 내놓습니다.

음력 정월에는 친척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을 세배라고 합니다. 세배를 하면 돈을 줍니다. 그것을 세뱃돈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